

민주 “김문수·이준석 내란 세력 단일화해도 파괴력 없을 것”

“국민의힘·개혁신당 야합 영향력 제한적... 보수층 결집 가능성은 경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세력 각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무실장은 27일 CBS 라디오에 나와 "단일화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용진 전 의원 역시 SBS 라디오에서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수 전체를 단순 합으로 놓고 본다면 해를 만한 구도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민주당은 단일화 성사 시에도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 지지로 귀결된다고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파괴력이 없고 과잉 경쟁화될 사안 아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맹' (반이재명) 표심의 결집 가능성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맹 정서를 구심점 삼아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막판 판세를 흔들 가능성에 대해선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대세가 역전될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살펴보면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실제 단일화가 만들어지면 선거를 포기하고 있던 보수층이 결집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두 후보 간 단일화를 '내란 단일화'로 규정하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를 '내란 옹호 세력 대 헌정 수호 세력 대결'로 각인시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천준호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내란 단일화 야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극우 내란 연장이나, 대한민국 위기 극복이나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지난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아류이고,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에 선을 긋지 않고 오히려 계급 해체와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수괴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7일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 끝까지 싸워 끝내 이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의 역사 위에 제가 퍼스트 펄크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이 추세대로라면 오늘 진행되는 조사에서는 제가 김문수 후보를 뛰어넘을 것이고 내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동탄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되살아나는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통령 취임식 앞두고 차량 퍼레이드 훈련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이 탑승한 차량들이 27일 서울 강서구 경호안전교육원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취임식 차량 퍼레이드 훈련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힘, 공동선대위원장에 윤상현... 친한계 “선거 포기인가” 반발

조경태 “철회 않으면 선거운동 중단”

국민의힘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수도권 5선인 윤상현 의원 (인천 동·미추홀을)을 임명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수도권 5선인 윤상현 의원 (인천 동·미추홀을)이 임명됐다. 5선 의원 출신인 이상민 전 의원은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 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재선 배현진 의원 (서울 송파을)은 수도권 선거대책본부장을, 초선 박정훈 의원 (서울 송파갑)은 서울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서울 강남병 초선 고동진 의원은 직능총괄본부 직능단장에, 비례대표 진중오 의원은 정책총괄본부 체육정책본부장에 임명됐다.

대통령 후보자 비서실에도 친한계가 합류했다. 안상훈 의원 (비례)은 정책특별단장을 맡았고, 정성국 의원 (부산 진갑)과 우재준 의원 (대구 북갑)은 각각 교육특보와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선대위는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화합과 통합에 중점을 두고 추가 인선을 진행했다"며 "이번 인선을 통해 김 후보는 통합의 외연을 한층 더 넓히고 선대위의 역량을 총결집해 정당당당한 선거전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친한계에 끄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27일 선대위 인선에 반발하며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힌 뒤 "이는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을 임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선거 포기를 선언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왜 하필 선거 막바지에 이런 무리수를 두는 지 그 의도가 참으로 궁금하다"며 "이는 당원들과 국민의힘을 배신하는 것이고 선거운동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친한계인 박정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 임명? 또 거꾸로 간다. 힘 빠진다"라고 적었고, 한지아 의원은 "승리를 위한 처절한 노력에 그들은 또 잔물을 끼얹는다"고 썼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사전투표 하루앞... 단일화 논의 평행선

국힘, 3자 구도 대비 기류

6·3 대선 사전투표(29~30일)가 이를 앞두고 다가왔지만,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거듭되는 단일화 촉구에도 이 후보는 연일 강한 어조로 거부 의사를 드러내며 평행선을 이어가는 상황이며, 더 이상 상황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3자 구도에 대비한 '전략적 투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개혁신당은 "미래를 위한 투표를 해야 한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그 뜻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면서 "단일화가 없더라도 3자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개혁신당에 러브콜을 보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온도가 차가운 것이다.

윤재욱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결국 (김 후보에게) 전략적인

투표를 할 것"이라며 '투표를 통한 단일화'를 거론하고 나섰다.

단일화가 불발되고 3자 구도도 선거가 치러질 경우, 보수 진영에서 '사표(死票) 심리'가 작동해 이 후보는 선거보전금도 받을 수 없는 10% 미만 득표율에 그칠 수 있다고 압박하는 포석인 셈이다.

한 선대위원장은 통화에서 "더 이상 이 후보를 설득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이대로는 '준작량'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긴다는 논리) 캠페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혁신당은 강력 반발하며 단일화 거부 입장을 유지했다.

김철근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는 저급하고 악의적인 선동 구호를 들고 나왔다"며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명백한 흑세무민이자,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동훈 선대위 공보단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문수가 사퇴해야 이준석이 이긴다"며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수치를 때리자는 것은 60·70이다. 김 후보님은 대선 때까지 20·30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연합뉴스

방첩사 前수사단장 “여인형, 14명 잡아서 B-1 병커 이송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직속 부하에게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4명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들을 잡아 B-1 병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준장)은 27일 중앙지법군사법원에서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받아적으라'며 한명 한명 불

러웠다"며 "그 인원들을 잡아 구급시설, 그니까 수도방위사령부 B-1 병커로 이송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학영 (국회 부의장)·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양경수 (민주노

총 위원장)·김여준 (방송인)·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김명수 (전 대법원장)·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14명이다.

김 전 수사단장은 "이들에 대한 혐의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혐의는 모른다'고 하셨다"며 "혐의 점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내려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명단 자체가 정치인들이다 보니 처음 불러줬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은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